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전시센터에서 PACK EXPO '94가 열렸다. 흔히 '시카고팩'으로 불리는 이 전시회는 독일의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인터팩', 일본에서 개최되는 '도쿄팩'과 더불어 세계 3대 포장박람회로 손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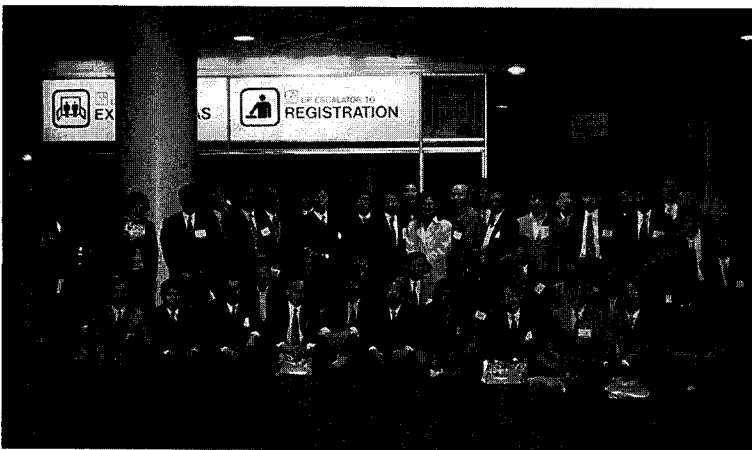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전시 참관단을 모집, 모두 44명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참관여행을 다녀왔다. PCAK EXPO 참관은 물론 시카고 근교에 위치한 종이백 제조업체 한 곳과 로스엔젤레스에 소재한 실링기 제조업체를 견학했으며, 참관인 중 일부는 미국에서 포장학교를 가장 먼저 설치한 미시간 주립대 방문도 곁들였다. 듣기로는 미국의 포장전문인중 60~70퍼센트가 미시간 주립대 출신이라고 한다.

여행은 흔히 세 개의 즐거움을 선사한다고 한다. 하나는 사는 곳을 떠나는 즐거움이고, 둘은 보고 싶은 것을 만나는 즐거움이며, 그리고 셋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즐거움이다. 박람회 참관을 겸해 짬짬이 시카고와 엘에이 시내 및 주변 관광명소를 둘러본 일도 그러한 즐거움을 더했다.

일행이 김포공항을 떠나 긴 항로 끝에 처음 도착한 시카고에는 밤이 내려 있었고, 밤하늘에는 마중이라도 하듯이 달이 떠 있었다. '시카고의 달'이었다.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들 여정이 어떠했는지 참관인중 몇 사람이 모여 좌담회를 가졌다.

거대한 세계 포장산업 흐름의 맥 찾기 PACK EXPO '94 참관좌담회



한국포장협회는 모두 44명의 PACK EXPO '94 참관인을 구성, 지난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참관 여행을 다녀왔다.

- 일 시 : 1994년 11월 29일 오후 4시
- 장 소 : 한국포장협회 회의실
- 참석자 : 이대성/한국포장협회 상근부회장
신윤철/유상공업 개발부 부장
한종구/동국전문대학 포장과 교수
이종현/미원 패키지팀 팀장
이명훈/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 소장
김재하/동양화학 연구소 수석연구원보
- 기 록 : 이우돈/포장정보 편집실장

이대성 : 세계 3대 포장박람회를 비교해 볼 때 인터팩이 가장 규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쿄팩은 포장재료, 물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짜임새를 자랑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PACK EXPO '94는 대체적으로 포장기계 출품이 많이 눈이 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속화와 로봇화, 컴퓨터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특히 포장분야에서 물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류의 개념이 Physical distribution에서 Logistics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는데 포장은 물류라는 큰 덩어리 속에 단지 한 분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보다 포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져 포장산업의 위상도 크게 제고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포장잡지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만큼 포장산업에 깊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읽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훈 : 뭔가 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참관인 중에서는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 박람회

를 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약간 미흡했지만 그런대로 수확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인 출품 동향을 보면 식품포장기계(vertical form/fill/seal machine)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제가 90년도에 참관했을 때보다 대형화가 두드러져 보였으며, 곁포장상자 포장라인까지 자동화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할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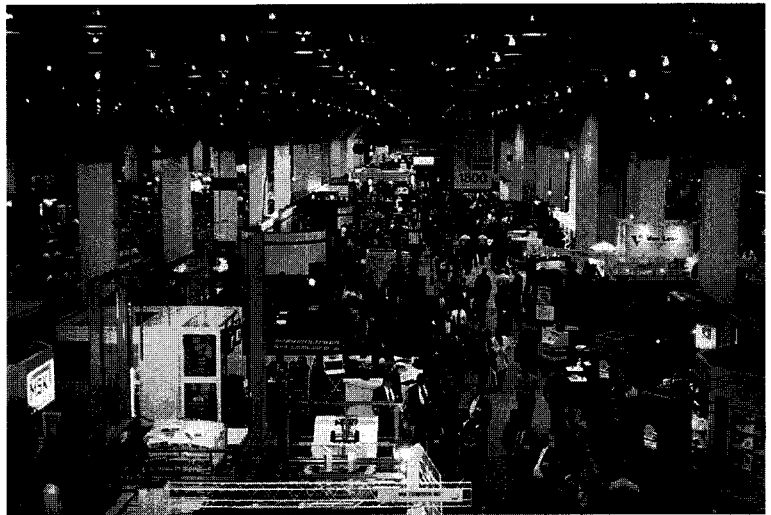
그리고 생각보다는 펄프몰드 제품 외에 환경관련제품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국내에서는 아직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쪽에서는 그와 관련한 논쟁이 이미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 메리트가 없다는 결론이겠지요.

물류부문에서는 특히 펠리타이저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밖의 물류기계는 별로 보이지 않았구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장설계프로그램을 들고 나온 업체가 제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CAPE SYSTEM 외에 두어 업체에서 출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품을 수직형태로 곧바로 박스에 포장하는 기계가 발길을 오래 잡아 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출품된 제품들을 웬만큼 읽어 나가 기엔 참관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체로 참관이 이루어지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참관진을 나누어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하 : 저는 그동안 포장과 크게 관련이 없는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의 전체적인 파악에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공부삼아 부스마다 세밀하게 관찰하다 보니 많이 돌아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저희 회사와 관계된 것을 하나 만났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PVA 레진을 생산하고 있는데 관련 필름 생산이 국내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수입해 의료분야나 농약용기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수용성 필름인데 이번 전시회에서 한 업체가 출품한 것을 보았습니다.



PACK EXPO '94는 82,000m²에 달하는 2동의 전시관에 세계 30여개국 1,400여 업체가 포장관련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세계 포장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었다.

CHRIS CRAFT라는 회사였는데 계속 연결을 맺고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현 : 저도 많은 것을 보긴 했습니다만 자세한 이해를 다 할 수는 없었고, 다만 저희 회사 아이템과 관련해서 관심있었던 것 위주로 보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매우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제품들이 선을 보였지만 특히 각종 CLOSURE는 물론 캡핑기, 충전포장기 등이 다 눈에 띄었습니다. 그 가운데 발효·분말식품, 액체식품 등의 기능성 용기 CLOSURE 시스템을 보았던 것이 하나의 수확이었습니다.

신윤철 : 처음에 이 부회장님이 각국별 전시회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끼기로도 각기 포장박람회마다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PACK EXPO에는 대략 70~80종의 아이템이 출품되었던 것으로 추산되는데 다종다양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컨대 기본적 완충재에서부터 최종 End User 단계에 이르는 아이템까지 포괄적으로 전시가 이루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이템에도 세부적으로 쪼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출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용기분야만 해도 실링, 라벨링, 펠리타이징, 수축포장, CLOSURE 등 항목마다 다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 출품 내용중 각별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판박이' 제품이었고,



PMMI의 마케팅 담당이사인 Andy Benson씨가 협회 참관단을 위해 PACK EXPO '94의 이모저모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그밖에 플렉소인쇄기를 비롯해 드라이라미네이터, 슬리터 등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기계의 부품들도 많이 선을 보였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한종구 : 80년대 초반 미시간 주립대 유학기간 중에 PACK EXPO를 참관한 바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 그때와는 달리 우선 그 규모에서 압도되었습니다. 전시장의 시설이나 등록사무소 등 제반 장치면에서 부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규모에 비해 이들 밖에는 참관을 못해서 세부적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포장의 전문분야에 걸쳐 고루 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내용들과 대체로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 저로서는 미국 20여개 대학에서 설치했던 포장교육 홍보부스에 관심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것을 대하고 한 마디로 이제 미국에서는 포장교육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는 시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대성 : 시카고 현지의 종이백 제조업체인 BAGCRAFT사를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우선 100여대가 넘는 기계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작업하고 있었는데 관리효율을 최대한 높이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기계들이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기계의 유지보수 및 관리시스템이 매우 훌륭해 생산성이 뛰어났고, 전산화체제를 갖춘 사무실, 일에 전력투구하는 작업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디자인 설계에서부터 백 제조, 상자 포장, 팰리트 포장, 창고보관 등이 최대한의 효율성을 고려해 일관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더구나 그 많은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는데도 소음과 냄새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한편 인쇄방식이 모두 플렉소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다소간은 충격과 과제를 안겨주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네들의 주장으로는 공해문제 때문에 그라비아 인쇄방식을 완전 탈피했다는 것인데 우리의 사정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앞으로 우리 업계의 포장인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를 던져주었다고 봅니다.

이종현 : 우리는 포장관련 업무가 각 부문별로 쪼개져 분산돼 있는 실정인데 비해 현지 업체 방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업체들은 토털 매니지먼트(Total management)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규모일지라도 그들이 능률과 생산성면에서 월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람회 참관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업체 현장을 방문하는 게 보다 실속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업체를 방문하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백크라프트에서 생산하고 있는 종이봉투의 디자인이라든가 인쇄 경향 등은 우리 실정하고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환경대책에 대한 업계의 노력도 상당하고, 또한 먼저 소비자들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소비형태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종이봉투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처럼 포장도 환경오염을 덜 수 있는 소재를 많이 찾고 또한 편리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변들포장 같이 소비자가 손쉽게 운반하고 바로 풀어헤쳐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간단한 방향으로 포장기법이 발전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중구: 저는 원래 공장 방문시 세밀하게 보는 편이 아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줄지에 통역을 맡게 돼 비교적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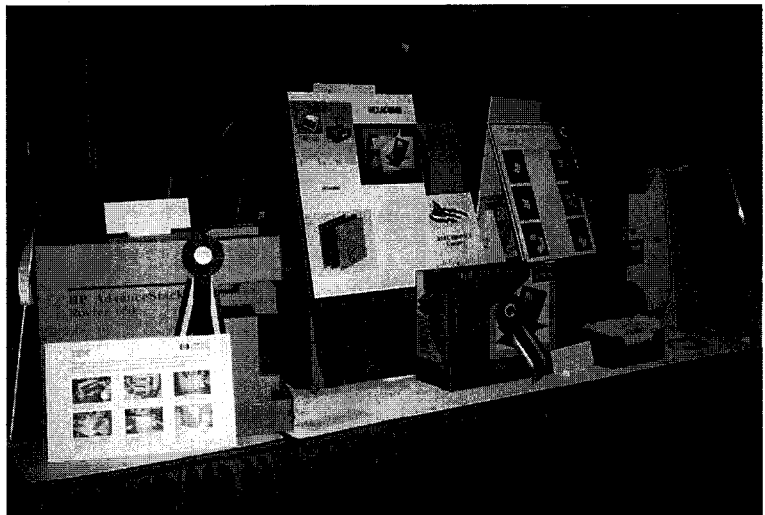
백크라프트사의 디자인실에서 제품디자인에 서부터 제판, 인쇄공정까지 자세히 보았는데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객이 디자인을 완전하게 만들어 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업체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 전문 디자이너를 확보하고 있고, 완전히 컴퓨터화된 장비를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기존 그라비아 인쇄를 플렉소로 완전 대체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만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환경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면서 그러한 경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윤철: 저도 업체 방문이 매우 소 득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재 투입과 동시에 일 관체제를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모습과 주문사양에 따라 시제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완전 컴퓨터 시스템화된 작업공정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디자인에서부터 견본 인쇄물까지 여러 외주 단계를 거쳐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데 그들은 짧은 시간에 일괄적으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백 퍼센트 플렉소 인쇄는 거의 그라비아 인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의 저희를 조금은 기가 죽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투명 투시창을 내기 위해 일부 플라스틱 필름이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95퍼센트 이상이 종이포장재였는데, 특히 소비문화의 다양화와 복잡화에 따라 팝콘포장지와 같은 예처럼 전자 레인지 대응 포장제품도 관심을 자아냈습니다.

작업자의 철저한 위생 개념도 눈여겨 볼만 했는데, 결론적으로 무언가 얻은 게 많은 견학이었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업체 방문이 좀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하: 저도 백크라프트 방문을 통해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먼저 조금 다른 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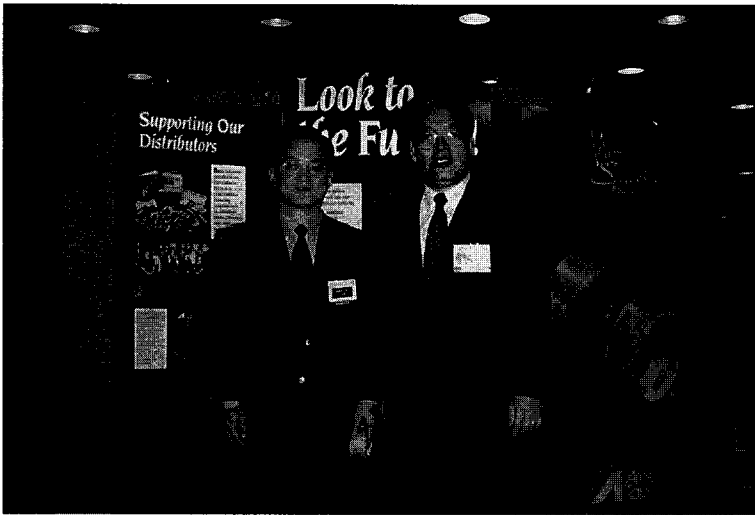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AmeriStar 수상작들. 이들 수상작품들은 국내의 금성포장전시회에서 보았던 포장제품들과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기일지 모르겠으나 현장을 안내하는 사람이 매우 친절했던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 해도 되겠다 싶은 것도 '지겨울 정도로'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고는 내심 감탄되는 바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취 발생이 없었음은 물론 종이가공회사인데도 지분이 전혀 날리지 않는 작업환경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듣기로는 종이발주에서부터 최상의 품질의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였는데 그만큼 작업환경이 청결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놓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 통할 것입니다.

대체로 미국사회는 환경을 고려해 종이포장재 사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명훈: 포장의 환경대응 방안으로 흔히 플라스틱 소재의 종이로의 대체를 말하는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컨대 종이포장재를 많이 쓰다 보면 산림자원의 황폐를 초래하게 되고, 펄프의 가공과정에서 소요되는 에너지 비용이라든가 오염 발생 문제 등을 감안한 토탈 비용에 있어서 종이 이용이 꼭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대성: 미국의 슈퍼 등에 가보면 거의 지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현실에서



(주)서통의 100퍼센트 현지 투자회사인 ATC는 특수테이프 및 일반 박스포장용 테이프 제조회사로 연 매출 1,000억원 규모이다. 사진 왼쪽이 최인진 대표.

는 종이값이 비싸서 그들만큼은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종이백의 강도 문제 등도 있어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아무튼 백크라프트사의 오퍼레이터 자질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재래식 방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최대한 효율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명훈: 한 가지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맥도널드 햄버거 포장에 필포를드를 이용한 것을 보았는데 다소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종현: 어쨌든 미국사회는 소비자가 앞서 환경 실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계와 당국이 아무리 대응해도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손에 의해서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에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훈: 박람회 출품 경향에 대해 앞서 언급하지 못한 것으로 대체로 포장기계가 육중하고 튼튼한 것들이 많이 선보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form/fill/seal 기계 등을 보면 컴퓨터 제어 시스템을 채용해 비숙련자도 오퍼레이팅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지시하는 여러가지 옵션에 따라 작동이 편리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전자제어 시스템은 일본제품이 많이 채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PMMI(미국포장기계제조자협회)의 ANDY BENSON 씨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기계생산량에서 수출되는 비중이 5퍼센트인데 포장기계생산량은 23퍼센트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중 수출비중은 22퍼센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교적 내수비중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수출시장이 주로 북남미 지역에 치우쳐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시아 시장 진출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성: 92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이 세계 15위의 무역규모이고, 향후 중국의 시장 잠재력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가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도 요즘 운위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갖추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람회 참관과 업체 방문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밖에 여행 일정 전반에 대한 주변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지요.

한중구: 저의 이번 여행 일정 중에는 미시간주립대학의 포장학부 방문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람회 참관을 마치고 일행과 잠시 헤어져 이대성 부회장님을 비롯한 몇 분이 함께 미시간주 랜싱에 갔었습니다. 동국전문대학의 포장과 교수로서, 또한 우리나라 포장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조사를 위해 그곳의 교과과정이나 시험장비 등에 대해 전반적인 형편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같은 학교에서 저도 10년 전에 석사과정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학교에 가보고서 놀랐던 것은 포장학부의 건물도 그때에 비교해 두 배 이상 커졌고, 실험장비 등 실험실의 규모는 열 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본 일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실험 장비가 관련 업계와 동문 등이 기증한 것이라는 학과장의 설명을 듣고는 마냥 부러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의 포장교육과 관련 연구의 범위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다

시 한 번 느끼게 되었으며, 한편으로 그들과의 격차를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김재하 :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외전시회 참관이 처음이었지만 나름대로 PACK EXPO 참관의 전체적 소감을 정리하자면 우선 전시 주최측의 세심한 준비가 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입장카드를 발급해 각 부스에서의 인포메이션 요청을 전산처리하게 함으로써 참관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것은 국내 전시회에서도 시도해 볼만한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둘째로는 환경문제 해결을 우리는 썩는 것까만 연결짓는 경향이 있지만 전시회를 통해 보니 용기 등의 재활용이라든가 '에어백' 등의 제품처럼 재사용에 상당한 노력을 경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로는 기계의 로봇화가 눈에 띄었는데 생력화는 물론 작업환경 문제도 고려한 귀결로 여겨집니다.

끝으로 이번 참관을 주선하신 포장협회의 한용교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행사 직원, 동행했던 참관인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신윤철 : 박람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부할 재료가 많이 있었지만 지적된 대로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가이드북 같은 것을 입수할 수 있었으면 좀더 효과적인 참관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등 유통현장에 대한 견학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지지 못한 점도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계획대로 순조롭게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추진 주체의 지도력과 정성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포장협회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낸 모든 참관인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명훈 : 젊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차후에 이런 기회가 또 있게 되면 미시간 주립대 방문도 일정에 꼭 넣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포장이 마



한국포장협회 이대성 부회장을 비롯해 일행 일부가 미시간 주립대를 방문했다. 사진 왼쪽부터 한종구 교수, 미시간 주립대 포장학과 학과장 Bruce R. Harte 교수, 이대성 부회장, 이종현 부장, 이명훈 소장

구잡이가 아니라 학문적 뿌리를 갖고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를테면 포장산업의 위상과 포장인의 정체성을 얼마간 느낄 수 있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성 : 연말이라 모두들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오래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여러 조언을 잘 수용해서 차후 저희 협회가 참관여행을 구성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함께 여행했던 모든 참관인들에게도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에필로그

참관인 일행은 11월 20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출발, 다시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여행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사는 곳을 떠나는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여행은 집으로 돌아가는 즐거움도 선사하는 것이 아닐까? 일부 일행은 가족이 마중나와 반가운 해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공항 출입문을 빠져 나왔을 때 문득 밤하늘에 등두렷이 달이 떠올라 있었다. '서울의 달' 이었다.